

■ '나무 병충해 예방의 첨병'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

“꿈 속에서도 ‘나무 병’ 고쳐요”

파스퇴르가 인류의 전염병을 없애려 했다면, 그들은 나무의 질병을 퇴치하려 한다. 린트겐은 사람의 속을 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나무 속을 들여다보기를 원한다.

나무 병충해 예방의 '첨병'인 '전남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제61회 식목일을 앞두고 쉴 틈이 없었다. 4월의 첫 휴일인 2일, 아들 딸과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갔으면 하는 날이지만 나무의 불치병이 사라지는 날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기 위해 휴일을 반납한 것이다. "저놈이 바로 '소나무 재선충'이에요. 식도가 끈게 뻗어있지 않고, 타원형 모형이죠? 굵아먹힌 소나무

재선충·밤나무 흑벌 등 400여종 병해충과 싸움

항암효과 '꽃송이버섯' 인공 재배 실용화 '눈앞'

의 원통함이 깃들여 있는지 식도가 구불구불 꼬여있어요." 박화식(48) 임업시험과장 등 연구원들의 가장 큰 적은 감염되면 치료방법이 없어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材線蟲). 지난 2001년 목포 유달산에서 첫 재선충이 발병한 이후, 전남도내 산 곳곳을 찾아다니며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감염된 나무는 소각하고, 외부에서 반입되는 나무를 철저히 통제한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요즘 걱정이 많다. 지리산 인근의 경남 하동에서 재선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연구소에는 지난해부터 하루가 멀다고 들어오는 '재선충의 심신고'가 접수된다. 연구원들은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을 방문,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다. 지난해 이후 신고 접수된 '재선충 의심신고'는 830여건. 가족과 떨어져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특별하지도 않다.

연구소는 봄에 기승을 부리는 '밤나무흑벌'에 맞



산림환경연구소 직원들이 2일 연구소 내 식산(植山)에 심은 소나무의 병해충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왼쪽) 전남도내 산에서 채취한 병든 소나무 시료를 광학 현미경 등으로 조사하는 '천적사육실-산림병충해실' 협실. /니주=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이 높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꽃송이버섯'의 인공재배법을 개발한 것이다. 인간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칸'(β-Glucan)이 100g당 43.6g이나 함유돼 있는 꽃송이버섯은 연구소의 배양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이다. 김명석(58)소장은 "이곳에 근무하는 42명의 직원은 잠을 자면서도 나무의 병을 고치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이라며 "산불은 이들의 꿈을 짓밟는 재앙인 만큼 시·도민들이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실 '비밀병기'도 준비해놓고 있다. '천적 제2사육실'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는 5만 마리의 '중국진꼬리좀벌' 유충이 그것이다. 유석봉(38) 임업연구사는 "4월 말까지 사육실의 온도를 20~25도로 올려 이들을 성충으로 부화한 뒤, 흑벌 피해가 심한 광양 진상면(10ha)에 방사할 것"이라며 눈을 빛냈다. 이처럼 연구소가 싸우는 산림병해충은 400여종에 달한다.

병에 걸린 나무를 치료하기보다는 건강한 나무를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게 박화식 과장의 지론. 현재 '술걸질까지벌레'에 탁월한 저항력을 가진 우량소나무 40그루를 육성, 시험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밤나무와 민들레나무, 홍가시나무 등 7만9천그루의 우량묘목을 생산했고, 올해도 15만 그루를 만들 계획이다. 민들레나무는 당뇨·위암·성인병에

방에 효과가 있어 kg당 2만원에 팔리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연구소는 올해 경제성이 높은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항암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꽃송이버섯'의 인공재배법을 개발한 것이다. 인간 세포조직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베타글루칸'(β-Glucan)이 100g당 43.6g이나 함유돼 있는 꽃송이버섯은 연구소의 배양실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이다.

김명석(58)소장은 "이곳에 근무하는 42명의 직원은 잠을 자면서도 나무의 병을 고치는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이라며 "산불은 이들의 꿈을 짓밟는 재앙인 만큼 시·도민들이 예방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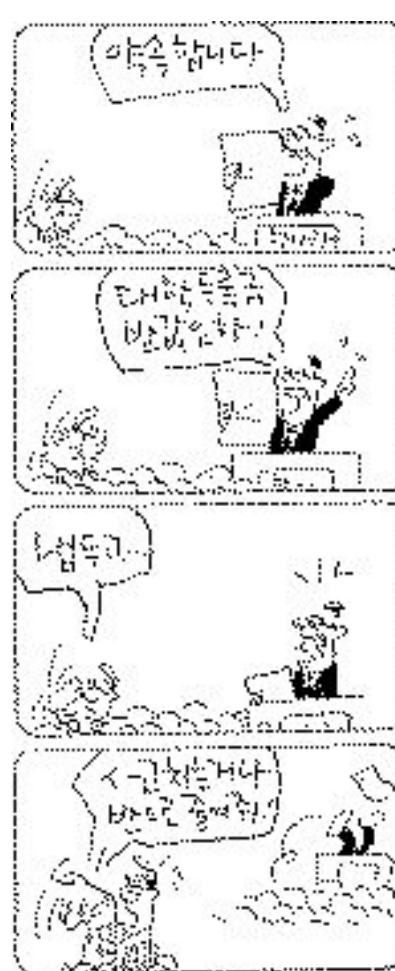
민주 신안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 조작 보도 의혹

경찰, 수사 착수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한 신문사가 주민여론조사를 허위로 조작·보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목포경찰은 지역신문인 M신문사가 보도한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여론조사가 일부 조작·보도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여론조사 방법 등에 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M신문사는 H리서치에 의뢰,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 여론조사를 한 후 'K모 후보가 20.12%로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다른 2명의 K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등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고 지난달 8일 보도했다. M신문의 보도가 나가자 조사결과에 반발한 일부 후보 지지자들은 경찰에 여론조사 허위 조작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1위를 차지한 K후보를 제외한 민주당 신안군

수 후보로 나선 나머지 6명의 후보는 "M신문사가 고의적으로 K모씨를 민주당 신안군수 후보경선에서 공천을 받게 할 의도로 주민여론조사를 허위로 조작·발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M신문사 김모 편집국장은 "여론조사기관에서 지난달 5일과 6일 동안 관내 주민 905명의 표본을 추출, 실시한 ARS 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여론조사 조작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나원침 (6795) 김중두



연제2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채 | 중 353명 3534명
문의 (062)366-4220

전선 실린 트럭 통째로 흠쳐

광주 남부경찰은 2일 22.7t 상당의 전선(시가 5천600만원)이 실린 트럭을 통째로 흠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4·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흠친 전선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K고물상 주인 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대학 강사 째질방서 여중생 성추행

○**째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중생을 성추행한 30대 대학 강사가 경찰에 입건.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C대학교 강사 정모(36)씨는 2일 새벽 2시에 북구 용봉동 H사우나 수면실에서 언니(26)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모 중학교 1학년 A양(13)의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것. ○**정씨는** A양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찾아와 따질 때까지만 해도 범행 일체를 전면 부인했으나 뒤늦게 "술에 취해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발백.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7 광주일보 제17413호 2006년 4월 3일 월요일

돈 받고 수사 기밀 유출 광주지검 6급직원 구속

사건 무마 청탁 돈 받은 혐의도

광주지검은 2일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처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광주지검 6급 직원 A씨와 A씨에게 사건청탁을 한 J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광주지검 특별수사부 수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평소 잘 알고 지내오던 J씨로부터 '카드깡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친구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검찰계에 보관돼 있던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서 복사본을 유출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2003년 2월에도 제주지검이 조세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한 B씨에 대한 사건 무마를 부탁받고,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청진 혐의도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부·애인 '스왑핑' 인터넷 카페 성행"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주장

부부나 애인간에 파트너를 교환해 성행위를 하는 '스왑핑'(swapping) 주선 인터넷 카페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버젓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3월 말 현재 유명 포털사이트인 D사에만 20개의 스왑핑 주선 카페가 개설돼 있으며, 1천546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카페 회원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두 커플이 상이 참여하는 집단 스왑핑까지 하고 있으며, 스왑핑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일부 스왑핑 카페에서는 부부에 도우미가 긴 쓰리섬(threesome : 3명이 참여하는 집단 성관계)을 주선하거나 사중생이 스왑핑 모임에 참여하는 극단적 성도덕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포털사이트인 D사에 주민번호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인터넷카페만 20개이고, 여기에 5천878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의자의 혁명 아라체어 15년 오리지널

세계최초 국내최대 발명특허 의자. 미국 FDA 의심기기 승인

2006.3.10. NH투자증권 공모발매

www.arachair.co.kr

주거환경 1번지! 투자기치 1번지!

북구 용봉동 대정사당으로

분양면적 110㎡ | 37평 | 35평

062)525-2003